



2027
고2 문학
미래엔

2027 고2 문학 미래엔 | 1(1)(1) 마음의 달 기출 서술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상 출제 유형

이번 단원에서는 「마음의 달」에서의 ‘껌이다’가 긍정적으로 사용된 부분과 관련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의 경과와 달의 위치 변화에 따라 화자의 상처가 치유되어 ‘보름달’처럼 내면이 총만해지는 정서적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메밀꽃 필 무렵」과 연결 지어 ‘달’이라는 공통적인 소재가 어떠한 문학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 독자가 경험하는 정서적 고향과 삶의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시나무 울타리에 ㉡달빛 한 채 걸려 있습니다
마음이 또 생각 끝에 저뚱니다
망초(忘草) 꽃까지 다 피어나
들판 한쪽이 기울 것 같은 보름밤입니다
달빛이 너무 환해서
나는 그만 어둠을 내려놓았습니다
둥글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달 보고 자꾸 절을 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바라는 만큼이나 간절합니다
무엇인가 찢려 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달도 때로 빛이 **꺾인다**는 것을
한 달도 반 꺾이면 보름이듯이
꺾어지는 것은 무릎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을 들고 달빛 아래 섰습니다
들숨 속으로 들어온 달이
마음속에 뚫습니다
달빛이 가시나무 울타리를 넘어설 무렵
마음은 벌써 보름달입니다

- 「마음의 달」

1. 이 시의 화자가 지닌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를 회상하며 앞으로의 삶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 ②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자연물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있으며 욕망에 대한 달관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며 자신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고 있다.
- ⑤ 화자 자신과 대조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대상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

2.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명사로 행을 종결하여 시적 상황에 여운을 주고 아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추상적인 사람의 마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시각적 표현을 활용하여 가시나무 울타리를 넘어가는 보름달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일상적인 언어에 역설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⑤ 경어체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서정적이고 차분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3. 시의 각 구절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시나무 울타리에 달빛 한 채 걸려 있’는 모습은 화자의 어두운 정서를 환기하는군.
- ② ‘망초 꽃’이 피어난 들판은 보름밤의 ‘너무 환’한 이미지와 결합하여 미적 분위기를 형성하는군.
- ③ ‘달빛이 너무 환’한 것과 화자가 ‘어둠을 내려놓’는 것은 인과관계를 이룬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둥글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달에게 절을 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느끼는 부족함과 이를 채우려는 간절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겠군.

【8~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시나무 울타리에 달빛 한 채 걸려 있습니다
마음이 또 생각 끝에 저물니다
망초(忘草) 꽃까지 다 피어나
들판 한쪽이 기울 것 같은 보름밤입니다
달빛이 너무 환해서
나는 그만 어둠을 내려놓았습니다
동글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달 보고 자꾸 절을 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바라는 만큼이나 간절합니다
무엇인가 찢려 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달도 때로 빛이 꺾인다는 것을
한 달도 반 꺾이면 보름이듯이
㉠꺾어지는 것은 무릎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을 들고 달빛 아래 섰습니다
들숨 속으로 들어온 달이
마음속에 뒹습니다
달빛이 가시나무 울타리를 넘어설 무렵
마음은 벌써 보름달입니다

- 「마음의 달」

8. 작품의 주제를 고려하여 ㉠의 의미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 대조의 방식을 사용할 것.
- ‘물리적’, ‘육망’이라는 두 개의 어휘를 포함하여 완전한 문장으로 작성할 것.

9. 위 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꺾이다’라는 표현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화자가 이 표현을 통해 어떠한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는지 서술하시오.

<조건>

- 일상어인 ‘꺾이다’의 의미가 어떻게 전환되었는지 포함할 것.
- 2문장 이내로 작성할 것.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③

화자는 보름달이 가시나무 울타리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며 삶의 깨달음과 위로를 얻고 있으며 욕망에 대한 달관적인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① 과거를 회상하거나 앞으로의 삶의 의지를 다지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화자는 현재 망초 꽃 핀 들판에서 보름달을 보고 있는 것이다.
- ② 시각적 이미지가 중점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을 예찬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 ④ 상처 입은 경험을 보름달을 통해 역설적 의미로 승화하고 있으며, 과거와 현재의 대비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⑤ 특정 대상에 대한 화자의 연민은 나타나지 않는다.

2. 정답 ①

대부분의 행이 서술어로 종결되고 있으며, '넘어설 무렵'은 명사로 행이 종결되었으나 여운을 준다거나 아쉬움을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② '달'과 같은 소재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 ③ '달빛이 가시나무 울타리를 넘어설 무렵'에 시각적 이미지가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일반적으로 '꺾이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이 시에서는 '꺾이다'의 긍정적인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 ⑤ '~습니다'의 경어체 어미를 사용하여 서정적이고 차분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겸허한 자세로 자신을 성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3. 정답 ⑤

'무엇인가 찢려 본 사람들'은 달에게 많은 것을 바라는 '동글게 살지 못한 사람들'과 대조되는 태도를 지닌다. 이들은 달도 때로 빛이 꺾일 때가 있음을 이해하며, 마음을 꺾음으로써 오히려 보름달처럼 충만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역설적 깨달음을 얻은

인물들이다.

- ① 가시나무 울타리에 걸린 달빛을 보며 마음이 저문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화자의 내면이 어두워짐을 나타낸다.
- ② '망초 꽃'이 피어난 들판과 환한 '달빛'은 서로 조응하며 시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 ③ '달빛이 너무 환해서' '나는 그만 어둠을 내려놓았습니다'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 ④ '동글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속의 부족함과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달에게 절을 하며 간절히 이를 채우고자 한다.

4. 정답 ③

화자는 달을 보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는다. 달에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동글게 살지 못한 사람들'에 해당한다.

- ① 가시나무 울타리에 걸려 있는 달빛을 본 화자가 '마음이 또 생각 끝에 저뭉니다'라고 말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 ② '달빛이 너무 환해서 나는 그만 어둠을 내려놓았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꺾어지는 것은 무릎이 아니라 마음입니다'에서 마음은 꺾임으로써 오히려 보름달처럼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상처의 극복 이후 '마음은 벌써 보름달입니다'라고 말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5. 정답 ②

㉠은 아픔이나 시련을 주는 존재이고, ㉡는 화자가 어둠을 내려놓게 하고, 가시나무 울타리를 넘어서는 존재로 화자에게 위안과 치유의 의미로 기능한다.

- ① ㉠은 상처를 주는 대상으로 이를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는 화자에게 장애물이 아니다.
- ③ ㉠을 통해 화자는 과거의 추억을 환기하지 않으며, ㉡는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으로 불안감과 거리가 멀다.
- ④ ㉠은 욕망의 대상과 거리가 멀다. ㉡를 보고 절을 하며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있지만, 화자는 '무엇인가 찢려 본 사람들'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이 화자의 자아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며, ㉡는

공동체의 유대감과 거리가 멀다.

6. 정답 ②

㉠ 시의 전반부에서 달빛이 울타리에 걸린 서정적인 배경 묘사는 독자에게 심미적 즐거움을 줄 수 있다.

㉡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꺼이다’를 역설적으로 활용하여 시련을 성숙의 기회로 표현한 점은 독자에게 참신한 미적 체험을 제공할 수 있다.

㉢ 문학이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독자가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자 삶의 지표가 된 경우이므로, 문학의 윤리적 기능에 해당한다.

①, ②, ③, ④ <자료>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이 아니다.

7. 정답 ⑤

작품에 나타나는 ‘꺼인다’는 욕심을 줄이는 것, 시련을 겪는 것을 의미한다. ‘꺼인’ 이후, 보름달과 같이 환하고 충만해진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 의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인간의 근원적 한계를 보여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꺼이다’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생각이 드러난다.

② ‘꺼어지는 것은 무릎이 아니라 마음입니다’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무릎’과 다르게 ‘마음’이 꺾이는 것은 욕심을 줄이는 것과 같은 정신적 성숙을 의미한다.

③ 달이 한 달의 반이 지나면 오히려 만월이 되듯이, 마음 또한 꺾임의 과정을 통해 충만함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④ ‘꺼인다’는 것은 이 작품에서 욕심을 줄이는 것, 시련을 겪는 것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화자의 역설적인 깨달음을 드러낸다.

8. 정답 ‘꺼어지는 것은 무릎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말은 물리적으로 꺾이는 무릎과 달리 마음은 상처를 경험하고, 욕망을 버림으로써 자유롭고 환한 마음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9. 정답 일상에서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꺼이다’

를 욕망을 비우고 내면을 다스린다는 긍정적 의미로 전환하여 표현하였다. 화자는 마음이 꺾이는 시련과 아픔을 겪어야만 오히려 ‘보름달’처럼 환하고 충만한 상태로 성숙해질 수 있다는 역설적인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